

#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궁금하지 않나요?

## 강진 민화뮤지엄 내달 2일 개관

해학과 풍자 가득 은근한 매력  
민중 생활 담긴 1500여점 전시  
한·중·일 3국 춘화 특별전도  
민화대전 대상에 지수민 작가



장죽을 물고 있는 호랑이.



강진군 대구면 고려정자촌 일대에 조성된 한국민화뮤지엄 전경.

푸른 소나무 가지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고, 그 아래 호랑이가 꼬리를 치켜 올리고 서있다. 자세히 보면 호랑이는 해학적이고 익살스런 표정을 짓고 있고, 까치는 우스꽝스럽게 생긴 호랑이를 조롱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호랑이와 상서로운 소식을 전하는 까치를 함께 그린 '까치와 호랑이' 그림(鶴虎圖)은 민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까치와 호랑이 설화를 표현한 것으로, 까치는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해 '희보'(喜報), 호랑이는 액운과 잡귀를 막아준다는 '백사', 소나무는 '인월'(寅月=음력 정월)의 의미를 가진다.

조선들은 정월 초하루에 '액운과 잡귀를 내쫓고 좋은 소식을 불러오라'는 바람을 담아 대문이나 집안에 작호도를 붙였다. 또 호랑이는 부패한 관리, 까치는 선량한 백성을 상징하기도 해 부패한 관리와 위정자를 선량한 백성이 조롱하며 꾸짖는 그림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조선시대 후기 민초들은 정통회화의 흐름을 모방해 생활공간의 장식에, 또는 민속적인 관습에 따라 실용화(實用畵)를 제작했다. 대부분 정식 그림교육을 받지 못한 무명화가나 떠돌이 화가들이 그렸고, 서민층 병풍과 족자, 벽에 붙여졌다. 이를 '민화'(民畵)나 '속화'(俗畵)라고 불렀다.

민화리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는 일본인 야나기 무네요시(1889~1961년)로 "민중 속에서 태어나고, 민중을 위해 그려지고, 민중에 의해서 구입되는 그림"이라고 정의했다.

조선시대 민화의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이 강진에 들어섰다. 강진군은 5월 2일

대구면 사당리 강진 청자촌에서 '한국 민화뮤지엄' 개관식을 갖는다.

◇한민족의 미(美)의식을 잘 표현=군은 사업비 63억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2441㎡, 연면적 1859㎡ 규모의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민화박물관을 건립했다. 한국민화뮤지엄(관장 오석환)은 고려정자의 산실(産室)인 청자박물관과 함께 강진의 또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예상되는 강원도 영월군 소재 '조선민화 박물관' 소장품 4500여 점의 작품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1500여점을 한국 민화뮤지엄으로 이관해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민화뮤지엄 1층에는 상설 전시장과 수장고, 체험장 등이 있으며, 2층에는 기획전시장을 비롯해 특별전시장, 학예연구실 등이 들어선다.

메인 전시공간인 상설 전시장은 ▲민화속 호랑이(작호도, 군호도) ▲민화에 핀 꽃(화훼도, 화조도) ▲민화속의 선비의 꿈(문자도, 책가도) ▲민화속의 경치(산수화) ▲민화 속의 옛이야기(설화도, 고사인물도) ▲민화 속의 물고기(어해도, 어번성룡도) 등 6개 주제로 구분돼 있다. 또한 민화를 활용한 4D영상 체험 등 감성적 체험공간도 갖췄다.

2층 기획전시장에서는 개관을 기념해 '석지 채용신의 삼국지연의도 특별전'과 함께 '제1



민화대전 대상작 지수민 작가의 '용호도'.

회 대한민국민화대전 수상작 전시회'가 열린다. 채용신은 조선말 고종의 어진(御眞)을 그린 당대 최고의 어진화사(畵師)로, 대표적인 '삼국지연의도' 8폭과 민화로 제작된 '삼국지연의도 병풍' 등이 이날 최초로 공개된다.

특별전시장은 '춘화'(春畵)를 테마로 한 공간이다.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춘화를 비교·감상할 수 있으며, 만19세 이상의 성인만

출입이 가능하다.  
◇조선 민화와 현대 민화 접목=개관식에서는 대한민국 민화대전(총상금 3000만원) 시상식이 치러져 조선시대 민화와 현대 민화를 접목해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민화대전 공모전에는 총 286명이 364점(민화 256명 330점, 공예 30명 34점)을 접수했으며, 최정상급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임선을 포함해 184명의 입상작이 최종 선정됐다.

영예의 대상(전남도지사상)에는 민화작가 지민선(경기도 성남시)씨의 '용호도'가 선정됐으며, 최우수상(강진군수상)은 민화부문에 양명성(경기도 부천시)씨의 '강진의 숨소리'가, 공예부문에 김우성(전남 강진군)씨의 '민화시계'가 각각 선정됐다.

또 전국의 민화관련 교수와 학생, 민화 작가 등 300여 명이 1박2일 일정으로 참여하는 '민화포럼'은 개관 전날 강진아트홀에서 진행된다. 특히 개관을 기념해 12월 말까지 20명 이상의 단체인 경우에 한해 체험학습 요금을 50% 할인할 예정이다.

오석환 관장은 "한국민화뮤지엄은 강진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의 풍부한 문화적 감성을 충족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은 물론 민족의 자산인 민화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학생들의 산교육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 '전라병영성 축제' 2만5000명 방문 성료



조선시대 병영(兵營)문화를 테마로 한 이색 축제가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28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4~26일 병영면 병영성 일원에서 열린 '제18회 전라병영성 축제'에 2만50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2013년 대비 30%의 관람객 증가를 보였다.

특히 조선시대 병사들이 먹었던 '조선병사 밥상'과 병영성을 무대로 전국을 누볐던 병영상인의 '뫼뫼 국밥'을 선보여 음식판매만으로 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병마절도사 임성식과 함께 시작된 이번 축제는 전라병영성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 특색과 매력을 살리고 먹거리와 조선 병영체험 등의 즐길거리를 늘려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조선병사 떡 먹이기를 비롯해 떡종 만들기, 조선시대 행벌체험 등에 참여한 관람객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 병영으로 돌아간 듯 체험행사를 즐겼다. 문화해설사와 함께 하는 병영성곽길 걷기 체험도 인기를 끌었다.

강진원 군수는 "이번 병영성축제는 예년과 달리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병영성만의 음식을 개발해 참여형, 수익형 축제로 전환했다"면서 "올해 축제를 기점으로 앞으로 전라병영성만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 장흥 등 3개군 운영 '농부장터' 수도권 인기



장흥·강진·영암 등 3개 군이 공동 운영하는 '한마음 2·5·4 농부장터'가 수도권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8일 장흥군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 앞 문화의 거리에서 연 '한마음 2·5·4 농부장터'에서 총 매출 1억 원을 웃도는 매출을 달성했다.

수도권 판촉 강화를 위해 열린 이번 장터에서는 ▲한우·키조개·표고버섯·낙지(장흥) ▲파프리카·토마토·된장·떡(강진) ▲무화과 양갱·잼·고구마·잡곡(영암) 등 지역을 대표하는 제철 농·수·축산물 200여 품목이 시중보다 2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됐다.

한편 '한마음 2·5·4 농부장터'는 지난해 7월 장흥, 강진, 영암의 공동발전을 위해 조직한 '3군 상생협력정책협의회'의 7개 협의사항 중 하나로, 지난해 11월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광장에서 첫 수도권 특판행사를 가져 소비자들의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효·충·신 등 여덟자를 여러 가지로 도식화하여 변형시킨 '문자도'.



조선시대 주로 혼례에 사용된 그림으로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도'.

창사 63주년

## 도시가 아닙니다. 정원이입니다. 순천!

순천의료용원

순천의료용원

청암대학교

청암대학교

순천광역시

순천광역시

순천교육지원청

순천교육지원청

순천시의회

순천시의회

순천시

순천시